

여자배구 '재건' 중책 맡은 차상현 감독 "자신감 회복 집중"



8년 만에 국내파 감독 선임…코치엔 국가대표 세터 출신 이숙자
VNL 잔류 실패·아시아권 경쟁력 약화 속 아시안게임에 초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나지 않으면서 위축된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차상현(52·사진) 전 GS칼텍스 감독은 여자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여자 대표팀은 작년 국제배구연맹(FIVB) 밸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참가했지만, 1승 11패의 참담한 성적으로 전체 18개 참가국 중 최하위 수모를 당하고 VNL 잔류에 실패했다.

FIVB 세계랭킹은 40위까지 떨어졌다. 아시아권 예선 일본(5위), 중국(6위)은 물론 태국(18위),

베트남(28위), 카자흐스탄(35위), 대만(37위)보다 낮다.

'배구 여제' 김연경(은퇴)을 앞세워 2021년에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 때 4강 진출 신화를 이뤘던 한국 여자배구의 위상이 5년여 만에 아시아 삼류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을 필두로 세사르 곤살레스, 페르난도 모랄레스 3명의 외국인 대표팀 감독 시대를 거쳐 8년 만에 국내파 감독으로 선회했다.

차상현 감독으로선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세계랭킹 순위로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에도 밀리는 상황이고, 한국 무대에서 뛰었던 메가(메기와티 퍼티위)가 뛰는 인도네시아 등 쉬

운 팀이 없다"면서 "우선 협회가 저를 뽑아준 만큼 국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 감독은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감독 시절이던 2020-2021 시즌에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컵대회 우승과 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발휘해 여자 배구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받았다.

함께 호흡을 맞춘 코치에는 국가대표 세터 출신의 이숙자(46)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이 선임됐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여자 대표팀 일원으로 4강 진출에 앞장섰던 이 코치는 세터 포지션에 특화돼 선수들을 지도하는 한편 차 감독을 보좌하며 선수들과 소통하는 가교 구실을 맡을 예정이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올해 VNL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6월 아시아배구연맹(ABC) 네이션스컵을 시작으로 7월 동아시아선수권, 8월 아시아선수권,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차 감독으로선 2028년까지 3년 계약했지만, 아시안게임 성적을 보고 재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1+2년' 계약을 한 만큼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표팀 소집은 프로배구 시즌이 종료되는 5월 중으로 예상한다.

'절친'인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은 물론 후배인 고희진 정관장 감독, 이영택 GS칼텍스 감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국내파 감독의 장점이다.

차 감독은 "시즌 중에 배구 해설을 하면서 소통해 왔고, 프로팀 감독들도 여자배구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젊은 선수 중심으로 짜인 대표팀 구성과 관련해선 "현재 강소회 선수가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 성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강소회 선수 위쪽으로 뽑을지는 팀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마추어의 반란…ATP 세계 1·2위 꺾고 '원포인트 슬램' 우승

호주 스미스, 이벤트 경기 1위
상금 100만호주달러 획득

호주의 아마추어 선수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 2위인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 앤디크 신네르(호주)가 모두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했다.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1포인트 슬램은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개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벤트였다.

프로, 아마추어, 남녀 선수를 가리지 않고 48명이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되, 무조건 1포인트를 먼저 따는 선수가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승 상금은 100만호주달러(약 9억8000만원)다.

1점만 따면 경기가 끝나는 데다, 서브권도 가위 바위보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운도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

이 대회에는 알카라스, 신네르는 물론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 등 남녀 톱 랭커들이 출전했다.

그러나 결승에는 호주 아마추어 선수인 조던 스미스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117위 조아나 갈랜드(대만)가 진출했다.

신네르는 스미스와 3회전에서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바람에 탈락했고, 알카라스는 WTA 투어 단식 52위 마리아 사카리(그리스)에게 덜미를 잡혔다.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스미스는 갈랜드와 결승에서 갈랜드의 백핸드가 라인 밖에 떨어지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갈랜드는 올해 호주오픈 여자 단식 예선에서는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1포인트 슬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마추어 선수 스미스가 기뻐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호주 오픈 개막에 앞서 진행된 이벤트로 세계 랭킹 1, 2위인 카를로스 알카라스, 앤디크 신네르가 출전했다.

탈락했으나 이번 대회 결승까지 진출하며 즐거워 했다.

'코트의 악동'으로 유명한 닉 키리오스(호주)는

갈랜드와 3회전에서 패하자 라켓을 코트 바닥에 내리치는 '분노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다음 시즌 외국인 2명 동시 출전 가능

외국인 2명 보유·2명 출전 변경

국내 남자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다음 시즌부터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KBL은 2018-2019 시즌까지 일부 퀴터에 외국인 선수 2명 동시 출전을 허용해오다가 2019-2020 시즌부터는 국내 선수 입지 확보 등을 위해 모든 퀴터에 외국인 선수를 한 명씩만 기용하게 했다.

하지만 리그 경기력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 선수 출전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이어졌고, KBL은 다음 시즌부터 2쿼터와 3쿼터에 2명을 동시에 뛸 수 있게 했다.

현행 외국인 선수 '2명 보유·1명 출전'에서

여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선수의 연봉 보장 계약도 이번 이사회를 통해 풀리면서 계약 유연성이 확대되고 인접 국가 리그와의 영입전에 서도 경쟁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이 기존 정규리그 경기 2분의 1(27경기) 이상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바뀌었다.

FA 협상은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 날'에서 '챔피언결정전 종료일 기준 3일 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FA를 통해 타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가 12월 31일까지 이적할 수 없었던 규정은 폐지됐고, FA 미체결 선수는 향후 리그 복귀 시에는 FA 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국 유도 유망주 순천서 동계 합동훈련

24일까지 전국대회·대표 선발전 대비

전국의 유도 꿈나무들이 순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2025 유도 꿈나무대표팀 및 전국 우수 선수 동계 합동훈련'이 지난 11일 시작돼 오는 24일까지 순천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에서 이어진다.

이번 훈련에는 꿈나무 대표팀 46명(지도자 7, 선수 38, 트레이너 1)이 참가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기술 완성도 향상을 노리고 있다. 국내 우수 선수들까지 200여 명이 훈련에 참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전국대회와 대표 선발전에 대비한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악지우, 외조부·어머니 이어 3대째 프로기사

장진아·이서영과 바둑 프로 입단

한국 바둑계에 최초로 3대째 프로기사 집안이 나왔다.

한국기원은 15일 끝난 여자 입단대회에서 장진아(20)와 이서영(17), 악지우(17)가 최종 판문을 통과해 프로기사로 입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국바둑고교 재학 중인 악지우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에 이어 국내 최초로 3대째 프로기사가 됐다.

악지우 초단의 외할아버지인 고(故) 권갑용 9단이다.

권갑용 9단은 오랜 기간 바둑 도장을 운영하며 이세돌·원성진·최철한·박정환 9단 등 여려 명의 정상급 프로기사들을 배출했다.

또 악지우의 어머니는 현재 여자바둑리그와 레전드리그 등에서 활약 중인 권효진 8단이다.

악지우의 아버지는 중국 출신 프로기사 웨량(岳亮) 6단이다.

2005년 권효진 8단과 결혼한 웨량은 2007년부

터 한국기원 객원기사로도 활동했다. 외조부와 부모에 이어 프로기사가 된 악지우는 "정말 프로기사가 되고 싶었던 시기에 입단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을 내는 기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끝난 입단대회에서는 장진아가 정지율을 꺾고 가장 먼저 입단을 확정했다. 이어 이서영이 악지우를 물리치고 두 번째 입단자로 이름을 올렸다.

악지우는 폐자 대결 최종국에서 정지율을 꺾고 마지막 입단 티켓을 거머쥐었다.

장진아 초단은 "프로 입단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어 정말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프로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초단은 "이번 입단대회에 자신 있게 나섰지만, 대국 내용이 워낙 파란만장해 다소 긴장되기도 했다"며 "그래도 입단하게 되어 기쁘고 열심히 노력해 최정 사범님 같은 기사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스포츠

광주일보

여자배구 '재건' 중책 맡은 차상현 감독 "자신감 회복 집중"

아마추어의 반란…ATP 세계 1·2위 꺾고 '원포인트 슬램' 우승

프로농구, 다음 시즌 외국인 2명 동시 출전 가능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스포츠

광주일보

여자배구 '재건' 중책 맡은 차상현 감독 "자신감 회복 집중"

아마추어의 반란…ATP 세계 1·2위 꺾고 '원포인트 슬램' 우승

프로농구, 다음 시즌 외국인 2명 동시 출전 가능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